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신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최근에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벌기 위해 펜을 들다>라는 책을 읽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생활고와 도박 빚에 쪼들려 소설을 썼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그가 얼마나 돈에 집착했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 새삼 놀라기도 했다. 저자의 과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여러 전기와 작품내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돈의 노예가 되어 글을 쓴 것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 글을 쓴 것인가? 결론은 돈 때문에 글을 썼다는 것이다. 세상이 돈 때문에 난리법석이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분노하고 절규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 영국 속담에 '돈이 신보다 좋다(Better gold than God)'는 말이 있다. 이제 돈은 이 시대의 신이 되었다. 이는 물신화(物神化)로 표현된다. 돈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을 것이다. 인간 삶의 진행과정에서 사람의 생활 편의를 위해 돈이 만들어졌다. 돈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충실한 심부름꾼이고 유용한 도구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망할 놈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돈님은 지금 매우 어지러운 것 같다.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검은 돈'의 문제로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 CI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면서 검은 돈의 행로가 세간에 밝혀지고 있다. 또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장남 재규씨와 주요 재벌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교육자, 문화계의 유명 인사들의 명단까지 잇달아 공개되면서 그 파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前 대통령들의 자제들도 검은 돈을 잘못 운영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는 앞으로 30명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한다.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서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로 이전된 돈은 총 7,790 달러(888조원)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이다. 또한 홍콩에서는 한국인을 위해 세금과 회사의 주인을 완벽하게 숨겨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주는 회사가 성업 중이다 한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계층 갈등, 실업, 불경기 등 돈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일부 재벌과 부유 계층들이 돈에다 검은 칠을 하여 숨기고 있다. 돈에다 검은 칠을 하면 돈은 악마로 변한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가? 세상

보다는 고집명도의 가르침이 새롭게 다가온다.

다시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없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다.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타락한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빛을 찾으려 했던 자신의 인생역정을 승화시킨 작품이다. 돈 때문에 쓴 글들이 인류 문학사에 큰 흔적을 남기고 있다.

현대사회는 돈을 가볍게 여기며 살 수 없다. 어쩌다 돈의 능력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 능력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사람의 가치관과 의지만으로 돈과 대결하기엔 이 사회의 경기 규칙이 너무 불공정하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람 탓만 하지 말고 돈이 하수구로 흘러 다니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돈의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도스토예프스키를 대할 수는 없다.

발언대

도로명주소 정책 논란

도로명주소 정책이 2014년 본격 시행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불교정년회를 비롯한 문화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에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명주소 정책의 부조리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불교계, '도로명주소' 반대 나서자



박호석
前 농협대 교수

지명은 그저 부르는 땅 이름이 아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와 문화, 풍속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새 주소를 정하면서 수 백 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 지명을 헌신적처럼 내버리는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실제 지금 정부가 붙여놓은 도로명을 살펴보면 실소가 나온다. 일개 회사 이름으로 정한 엘리로(경기 파주), 어실핀 영어로 지명을 정한 에이팩로(부산 해운대), 엠코로(광주 광산), 웰빙타운길(경북 문경), 예코파크길(경남 남해), 에넥스로(충북 영동) 등, 그리고 품위가 없는 토굴새우젓길(충남 홍성) 등은 법정지명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이름이다.

전국에서 4천 곳 이상의 법정지명이 해당지역의 수많은 길 가운데 그 하나의 이름으로도 쓰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온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무너트리는 문화말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조선조 건국시에 정해진 행정지명을 토대로 지어진 법정동명이 80% 이상 사라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현상이 일부 지자체에서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자세한 경우 파악이 필요하다.

토지등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지의 문제가 있어 지금의 지번주소를 별도로 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로명주소에서는 새로 집을 짓거나 신철도로가 개설되면 심의, 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 새주소를 부여해야 하므로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심화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2011년 여름 새 주소에서 불교지명이 사라졌다고 발끈했던 불교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 중앙종회가 새주소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서도 189차 임시 총회부터 세 번이나 연속해서 의안을 철회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조계종이 주장한 자신과 쇠신 5대결사에는 '민족문화는 지키자'는 문화결사가 있다. 지금의 법정지명을 도로명주소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족 문화 수호하는 길이다.

"새 도로명주소법 공익성 미미해"



전준호
대한불교정년회 중앙회장

땅에도 사람의 이름처럼 등기부에 등록된 이름인 법정지명이 있다. 그리고 법정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수 천 년 또는 수 백 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2011년에 공포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새로 정한 길 이름이 법정지명으로 대체되면서 법정지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도로명주소법은 정책 입안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의 서구적 도로명이 편리하다는 자의적이고 편익적인 지점에 따라 졸속하게 추진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역사가 말살될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심각히 우려된다.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일제시대의 문화말살 정책에도 지키고 보존했던 법정지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졌던 동명과 지명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되살려야 함에도, 산과 강 그리고 향토문화의 골목 속에서 형성됐던 전통지명을 모조리 서구식 도로명으로 바꾸고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 전통문화가 배어있는 법정지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택배나 우편배달의 편의성을 추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주소 찾기가 어려워져 바꾼다는 것은 껀변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법정명을 공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새 도로명주소법은 그 추구할 공익조차 미미한 것으로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의 의무와 헌법 제9조 국가의 전통문화보존 의무에도 명백히 반하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불교정년회 회원들과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지명연구가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와 이 취지에 동의하는 문화행정전문가 정동채전 문화부장관 등 63명이 헌법소원을 6월 3일 제기했다. 국민의 정서와 문화재적 가치 지역의 역사성,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는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은 폐기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社說

스님들의 노후걱정 웬말인가

석불사(石佛寺)는 서울 마포 한강변 주택가에 있는 절이다. 오늘날 석불사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령 9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비구니 스님 20명이 일가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직계 스승과 제자뿐 아니라 조카상좌, 손상좌 등이 어린 스님들을 모시고 산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가족은 가치 문화재급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석불사의 대가족 생활은 종단 쇠신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승려노후복지제도의 살아있는 교과서로도 평가된다. 절악과 양보가 오랜 화합의 원동력 이자 핵심이라고 한다.

지난주 조계종에서 가장 이슈가 된 세미나는 바로 '승가복지 연구발표 세미나'였다. 조계종 65세 이상 노스님들 중 73% 이상이 노후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승려 복지제도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님들은 노후생활을 불안케 하는 요소로 '건강'(6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수행·포교의 약화(8.1%), 낮은 소득(7.0%), 주거문제(6.2%)순이었다. 노후준비여부는 '없다'가 65.9%로 다수가 노후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과 수령도 미비한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률은 27.5% 정도이고, 응답자 중 28.2%만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가공동체에서는 분명 주거와 수발을 비롯한 노후복지의 문제는 일반사회와는 다른 특수성이 다수 존재한다. 일반 사회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족시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 스님들은 마포 석불사의 예처럼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며 산다면 노후 걱정에서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역사 교과서, 불교 오류·홀대 대책을

최근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모 아이돌 여가수의 '민중화 발언(본래 뜻과는 다른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 등은 장차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사관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는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가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7%정도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 교육이 얼마나 부채잔치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다보니 한국 역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분명함에도 학생들이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다. 거기에 초·중·고 역사 교과서의 불교 서술은 오류가 적지 않다.

불교연구원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역사와 교육학회가 6월 15일 개최한 학술 연찬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교과서 내 불교 오류를 잘 알 수 있다. 중학 역사 교과서에서 조선 이후에 불교 서술은 승유역불과 임진왜란 당시 사명 유정 대사의 활약을 제외하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불교

의 특징을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불교의 성향이 날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큰 오류다.

고등학교 국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8종의 고교 국사교과서를 분석한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에 따르면 △백제, 고구려 불교 공인 누락 △유가종을 범삼종으로 표현한 내용 △조선시대 의승군 활동 누락 등 수많은 오류가 존재한다.

역사는 한 사람에게는 가치관을 성립시키고, 국가에는 나아가 방향을 제시한다. 불교에 대한 오류가 많은 역사를 배운 국민들은 처음부터 불교를 기복이나 하는 하등 종교로 인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신교계가 최근 교과서 내 기독교 서술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불교 교과서 역사학회를 구성해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탈종공고
•사찰명: 용정암
•법 명: 정하
•주 소: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산 4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중지 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사찰명: 용장사
•주 소: 전남 광양시 성황동 744-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 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법하